선거연령 19세부터… 광주·전남 4만4,000명 첫 투표

■ 5·31지방선거 달라지는 것들

영주목적 체류 취득일후 3년된 외국인 선거권

여론조사 결과 선거일 7일 전까지 공표 가능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시행되는 5·31 지방선거는 이전 선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하향조정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광주의 경우 1만 9천178명, 전남은 2만 5천13명이 처음으로 투표하게 됐다.

또 영주 목적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준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광주에는 96명, 전남은 89명으로 광주·전남지역에 총 185명의 외국인이 선거할 수 있다.

'1인6표제'로의 변화도 눈에 띈다. 기존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광역의회 비례대표에 기초단체 비례대표선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의 물량 증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광주의 경우 선거인수가 110만여 명이기 때문에 6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600만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사용된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선거일 7일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혹은 보도할 수 있도록 한 것. 종전에는 선거운동기간 개시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었다.

선거법이 엄격해졌다고 하지만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다. 그동안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엄격히 규제했던 선거운동 방식에 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간판, 현수막, 현판 1개씩을 게시할 수 있어 그만큼 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셈이다. 또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이번에는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기초의원 선출방식이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기호 배정 등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한 지역구에 후보 1명씩만 내보내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여러 개의 선거구를 합쳐 주요 정당이 2~4명의 후보를 내보내면서 기호 배정에 따라 후보간 희비가 교차하는가 하면 같은 당 후보간에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현행 기초의원 후보자 기호 결정 방식은 같은 정당에서 2명 이상의 후보를 낼 경우 이름에 따라 1-가, 1-나, 2-가, 2-나, 3-가, 3-나와 같이 가나다 순으로 부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나, 다를 배정받은 후보자는 유권자들이 앞 번호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를 배정받은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등 부작용도 노출됐다.

부재자 신고 조건도 대폭 완화됐다. 종전에는 선거인 명부작성기간 전부터 자기 주소지를 벗어나 있어야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을 때 부재자 투표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선거일 날을 기준으로 외국 여행을 간다든지,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 90만명 규모였던 부재자 투표자 규모가 이번 선거에서는 67%나 늘어난 15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전남지사 후보들 본격 세몰이

우리 서범석·민주 박준영후보 순천·목포서 선거사무소 개소

전남지사 선거에서 격돌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후보가 14일 나란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준영 전남도지사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목포시 상동 '희망본부' 사무실에서 '전남의 운명을 바꾸자'는 슬로건 아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 김종인·신중식 부대표, 이낙연 원내대표 등 중앙당 주요 인사와 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 후보 등 1천여명이 참석해 민주당의 필승을 결의했다.

박 후보는 인사말에서 "2004년 6월 보선에서 민주당 부활 및 재건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승리를 통해 그 싹을 건강히 키워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풍요의 새싹, 천냥금 화분'에 물을 주는 깜짝 이벤트가 펼쳐졌고 당원에게 전하는 '전라도, 민주당 그리고 박준영' 영상물도 상영됐다.

열린우리당 서범석 후보도 이날 오후 5시 순천시 연향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개소식에는 유선호 전남도당위원장과 주승용·서갑원·우윤근·김성곤 의원, 지방선거 후보와 당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해 필승을 다짐했다.

서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향후 100년을 가름할 중대한 선거"라며 "영남과 호남에서 특정 당이 싹쓸이하는 것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 우리당의 창당정신을 살려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키자"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꼭지점댄스 실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서 후보는 유선호 전남도당위원장으로부터 '행복주식회사 전남 CEO 서범석'이라고 새겨진 패널을 증정받아 현판 대신 내걸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윤정) 소속 후보들은 14일 오후 1시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31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왼쪽으로부터 김애정(서구 비례)·신수정(북구 나)·정순애(서구 나)·이윤정 위원장·김화자(광산구 나)·이혜숙(남구 비례)·임이엽(서구 비례) 후보 등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한나라 원희룡의원 5·18 단체와 오찬

5·18 26주년 행사가 한창인 14일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5·18 단체 관련자들이 오찬을 나누며 5·18 유공자들의 복지 문제 등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 주목을 끌었다.

한나라당 소장파의 대표격인 원희룡 의원은 이날 광주 상무지구의 한 식당에서 10여명의 5·18 관련 단체 회원들과 식사를 했다. 5·18 문제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이 나설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5·18 회원들은 "사회적응을 못하고 5·18 증후군에 시달리는 유공자가 많으며 심지어는 자살자도 급증하고 있다" "보상은 받았으되 연금 혜택이 없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유공자가 대부분이다" "일반 유공자와 5·18 유공자와 차별이 심하다"고 말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D-16 5·31 지방선거 현장

"조영택 후보와 정책공조협약"

○…서범석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는 14일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이 우리당 광주시장 후보로 결정된 것과 관련 "조 후보와 머리를 맞대고 정책공조협약을 하고 필요하다면 공동선대위도 꾸려 우리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이날 조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 뒤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로 발전과 개발계획에서 연계할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 도당 선대위장에 최인기씨

○…민주당 전남도당은 14일 선거대책위원장에 최인기 도당위원장, 선거대책본부장에 정철기 전 의원과 손기정 도당 부위원장 체제로 선대위를 꾸려 15일 발대식을 갖는다.

최인기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무능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심판하고 50년 정통 중도민주개혁세력인 민주당을 되살리는 의미있는 선거"라며 "도지사는 물론 22개 시장·군수 모두를 압도적 차이로 석권해 호남민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시장 호남서 지지 호소

○…이명박 서울시장은 14일 한나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을 방문, "민주화운동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호남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이제는 민주화가 된 만큼 과거와 같은 맹목적인 지지가 아닌 호남민을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박재순 전남지사 후보와 주요 당직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올려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퇴임할 때까지 시장직무 최선"

○…김충석 여수시장은 12일 "시장 출마를 할 수 없게 된 만큼 퇴임하는 날까지 시장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여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민주당 여수시장 공천결과는 온 몸을 바쳐온 민주당의 결정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민주당이 나를 시장으로 만들어 준 만큼 마지막까지 민주당 깃발을 지키겠다"며 탈당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후보 결정 여론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 남부지법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를 제기했으나 각하 결정돼 이번 선거 출마가 사실상 무산됐다.

"담양 수북사태 책임 묻겠다"

○…민주당 담양군수 선거대책본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담양 수북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모 군수 후보가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사무장에게 한 행패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법률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담양군당원협의회는 "민주당 선대본부가 허위사실을 적시해가며 우리당 후보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를 통해 10일 벌어진 모든 일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법적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태명 후보 '도심공동화 대책'

○…유태명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오는 16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후 2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심공동화 극복 특별대책'을 발표한다.

유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금남프로젝트 공조 ▲권역별 특화 개발 ▲문화중심도시건설 등 동구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관권선거 주장은 흑색·비방"

○…김종식 열린우리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모 당 후보의 관건선거 개입 주장은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자 초조한 나머지 상대 후보를 흠집 내려는 흑색·비방 선전"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계속해서 흠집내기에만 전념한다면 공명선거를 위해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황일봉 후보 정책자문단 간담회

○…황일봉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는 14일 오후 정책자문단 교수 1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선관위와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황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실천가능한 정책의 제시를 통해 선거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정책자문단에서 정책의 검증을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달라"고 부탁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